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25일(토)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자연재난과	담당자	• 기후지진담당 박민영 ☎440-3366 • 담당자 김태수 ☎440-3358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강력 한파 대비 상황관리 ‘총력’

- 올 겨울 최강 추위 예상,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87명) 돌입 -
- 취약계층 한랭질환 방지 위해 감시체계 운영 등 관리 강화 -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응급복구반 편성·운영 -

인천광역시는 기상청에서 24일 시 전역(웅진 주의보)에 한파정보를 발표함에 따라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4일(금) 21시부로 수도권을 비롯한 인천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한파는 27일(월) 오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관련 사항을 관련부서와 10개 군·구에 전파하는 한편, 24일 10시부터 3개반(9개 부서) 87명이 참여하는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시는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SNS, 안내문자,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해 한파상황 및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취약계층의 한랭질환 방지를

위해 복지와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강추위가 장기간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축·수산물 시설 피해 최소화와 도로결빙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성탄절인 25일과 일요일인 26일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에 대비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응급복구반을 편성·운영한다.

정명오 시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주말에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수도계량기 동파와 농작물, 양식장 냉해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 고

한파 대응 합동 T/F

□ 구성도



□ 부서별 주요 임무

구분	부서	주요임무
상황관리팀	자연재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T/F 운영, 한파 대응 총괄 -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
건강지원팀	생활보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파 취약계층(노숙인, 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노인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파 취약계층(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 - 재난도우미(생활지원사) 운영 총괄
	보건의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의료 지원
시설관리팀	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수산과 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공급시설 한파 보호대책 추진 - 농·축·수산물 한파 보호대책 추진 - 농·축·수산물 한파 피해현황 파악 및 지원 - 도로 결빙 시 염화칼슘 살포
	상수도사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시설(수도, 계량기) 한파 보호대책 추진 - 상수시설 한파 피해현황 파악 및 복구